

This file has been cleaned of potential threats.

If you confirm that the file is coming from a trusted source, you can send the following SHA-256 hash value to your admin for the original file.

472a901ed042705e631945ebe10a657cd3723ddcac528cfa861f43b5ea8a950e

To view the reconstructed contents, please SCROLL DOWN to next page.

- **주요 뉴스:** 미국 8월 소비자물가, 상승률 둔화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
 - 세계금융협회(IIF), 2/4분기 전세계 부채는 사상 최대인 300조달러에 육박
 - 골드만 삭스, 미국 법인세율 인상 시 S&P500 기업의 이익은 5% 감소 전망
 - BofA의 설문조사, 기관투자자의 긍정적 세계경제 전망은 코로나 19 이후 최저
- **국제금융시장:** 미국은 8월 소비자물가 둔화 불구 경기 둔화 우려 등이 영향
주가 하락[-0.6%], 달러화 약세[-0.02%], 금리 하락[-5bp]
 - **주가:** 미국 S&P500 지수는 델타 변이에 따른 경제활동 부진 지속 전망 등이 반영
 유로 Stoxx 600 지수는 장중 상승했으나 중국의 코로나 19 확산 우려 등으로 보합 마감
 - **환율:** 달러화지수는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낮다는 평가 등이 주요 요인
 유로화 가치는 0.1% 하락, 엔화는 0.3% 상승
 - **금리:**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외환시장과 동일한 이유 등이 배경
 독일은 미국 채권시장의 영향 등으로 소폭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72.4원, +1.0원) 0.1% 상승, 한국 CDS 상승

		9/14일	9/13일	전일대비			9/14일	9/1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443.1	4,468.7	-0.57%	국채 금리 10y	미국	1.28%	1.33%	-5bp
	유럽	467.65	467.69	-0.01%		독일	-0.34%	-0.33%	-1bp
	중국	3,662.6	3,715.4	-1.42%	CDS 5y	한국	18bp	17bp	1bp
	일본	30,670	30,447	0.73%		중국	33bp	33bp	0bp
	한국	3,148.8	3,127.9	0.67%	위험 지표	EMBI+	-	352	-
환율	달러지수	92.66	92.68	-0.02%		VIX	19.46	19.37	0.46%
	유로화	1.1803	1.1811	-0.07%		WTI유	70.46	70.45	0.01%
	엔화	109.69	109.99	0.27%	원자재	구리	431.2	436.4	-1.18%
	위안화	6.4386	6.4518	0.21%		금	1,804.5	1,793.8	0.60%
	원화	1,170.8	1,176.0	0.44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500, 유럽 Stoxx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 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8월 소비자물가(CPI), 상승률 둔화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가능성

- 노동부, 같은 달 CPI와 근원 CPI는 전년동월비 각각 5.3%, 4.0% 상승하여 7월(5.4%, 4.3%) 대비 하락. 전월비 기준으로 상승률은 0.3%로 6월(0.9%) 고점을 기록한 이후 7월(0.5%)에 이어 하락세 지속
-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나, 그 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중고차와 트럭 가격의 하락은 향후 둔화 가능성을 시사. Capital Economics의 Paul Ashworth도 델타 변이 등에 따른 수요감소가 소비자물가 상승을 억제할 것으로 전망
- Morgan Stanley의 Jim Caron은 임대료 상승 등으로, 인플레이션 하락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평가. Financial Times는 전문가 조사 결과 연준이 9월 보다는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시행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세계금융협회(IIF), 2/4분기 전세계 부채는 사상 최대인 300조달러에 육박

- 같은 기간 정부, 가계, 기업의 총부채는 전기비 4.8조달러 증가한 296조달러이며, 지금과 같은 속도로 증가 시 조만간 300조달러를 상회할 전망. 특히 신흥국이 3.5조달러 늘어난 92조달러를 기록하여, 부채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상황
- 한편 같은 기간 전세계 GDP 대비 부채 비율은 353%로 전기(362%) 대비 코로나 19 이후 첫 하락 기록. 이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재개 등으로 GDP가 증가한 영향

■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, 연방정부의 섯다운(shutdown) 가능성을 언급

- 척 슈머 원내대표는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부채상한 확대에 실패할 수 있다고 주요 기업인들에게 경고. 합의 실패 시 10월부터 연방정부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. 공화당 미치 맥코넬 대표도 강경 입장을 유지

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(SEC) 위원장, 사모펀드와 채권시장의 투명성 제고할 필요

- 겐슬러 위원장은 사모펀드의 수수료 등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언급. 또한 관련 시장의 정보공개 확대를 통해 투자자들은 투자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부연

■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, ECB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경계를 지속

-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 수준이 큰 폭 올랐지만, 이는 반도체 부족과 주요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일시적 요인들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. 또한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2%를 넘어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

■ 독일 중앙은행 총재, 디지털 유로화는 제한적 형태로 시작하는 것이 합리적

- 바이트만 총재는 디지털 화폐의 경우 은행부문의 기능을 저해하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과도하게 확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. 이를 고려할 때, 디지털 화폐의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접근 방법이라고 강조

■ 주미 중국대사, 미국과의 안정적인 통상관계 유지를 기대

- 친강 대사는 양국이 상황을 어렵게 만들기 보다는 1차 무역협정 이행 및 상호 경제협력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희망한다고 언급. 또한 지금까지 추가적인 관세 부과 혹은 미국의 슈퍼 301조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한 경우는 없었다고 강조

■ 골드만 삭스, 미국 법인세율 인상 시 S&P500 기업의 이익은 5% 감소 전망

- 법인세율이 25%로 인상되면, 2022년 S&P500 기업의 주당이익은 212달러를 기록하여, 당초 예상했던 220.35달러에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. 최근 증시는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

■ BofA의 설문조사, 기관투자자의 긍정적 세계경제 전망은 코로나 19 이후 최저

- 조사에 따르면, 향후 12개월 성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 비율은 13%로 202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. 해당 비율은 금년 3월 91%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(9/14 현지시각 기준)

- 미국 8월 NFIB 경기낙관지수: 100.1, 7월(99.7), 예상치(99.0)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9/15 현지시각 기준)

- ECB 슈나벨 이사 및 레인 이사 강연, 미국 8월 산업생산
- 미국 9월 NHAB 주택가격지수, 뉴욕주 제조업지수, 유로존 7월 산업생산
- 중국 8월 주택가격지수, 고정자산투자, 산업생산, 소매매출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옵션시장, 유럽보다 미국 주식시장에 상대적으로 큰 위험 신호를 발신 - 블룸버그

(Stocks in U.S. Risk Rough Road as Options Market Flashes Warning)

- 미국 S&P500과 유럽 Stoxx600 지수는 지난 90일 동안 거의 동일한 변동성을 표출. 하지만 최근 3개월 만기 주가옵션 내재변동성의 미국과 유럽 간 차이(S&P 500 - Stoxx 600 implied volatility)가 확대
- 두 지역 모두 중앙은행의 양적완화 축소 위험, 독일 총선 및 미국 부채한도 상한의 정치적 이벤트 등 위험이 내재. 하지만, S&P500, Stoxx600의 12개월 선행 수익추정치(21배, 16배)와 주가매출액비율(2.8배, 1.5배)은 미국이 상당히 높은 편
- 이에 양자 간 위험 요인에는 유사점이 있지만,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매도 촉발 시, 미국 주식시장은 상대적 고평가를 감안할 때 유럽보다 큰 타격이 예상

■ 중국 헝다그룹 부실 문제, 정책 문제로 전환 - WSJ

(Evergrande's Cash Problem is Now Beijing's Political Problem)

- 그간 중국에서는 국영 및 민간 기업의 파산 시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도한 부채를 지닌 헝다그룹의 리스크에 투자자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. 헝다그룹 디폴트 용인은 정치적으로도 위험이 큰 사안
- 헝다그룹의 유동성 위기는 주택경기 위축효과는 물론, 주택구입자의 시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당국 입장에서는 곤란한 문제. 다만 정부가 주택시장의 동요를 진정시키더라도 금융 혼란은 커다란 과제

■ 미국 민주당의 세금 인상안, 득(得)보다 실(失)이 더 클 가능성 - 블룸버그

(Two Big Mistakes in the Latest Democratic Tax-Hike Plan)

■ 일본 반도체 산업 성장, 과소투자과 정부의 인식 부족 등이 걸림돌 - Financial Times

(Is it too late for Japan's semiconductor industry?)

■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, 당분간 연준의 단기 정책 결정에 제한적 영향 예상 - WSJ

(For the Fed, Inflation Doesn't Matter...for Now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ikyoon@kcif.or.kr